

국어 (9급)

(과목코드 : 014)

2022년 군무원 채용시험

응시번호 :

성명 :

- 다음 중 띄어쓰기가 가장 옳은 것은?
 - ① 지난 달에 나는 딸도 만날겸 여행도 할겸 미국에 다녀왔어.
 - ② 이 회사의 경비병들은 물 썰 틈없이 경비를 선다.
 - ③ 저 사과들 중에서 좀더 큰것을 주세요.
 - ④ 그 사람은 감사하기는 커녕 적게 주었다고 원망만 하더라.
- 다음 중 파생법으로 만들어진 단어가 아닌 것은?
 - ① 교육자답다
 - ② 살피보다
 - ③ 탐스럽다
 - ④ 순수하다
- 다음 중 사자성어가 가장 적절하게 쓰이지 않은 것은?
 - ① 견강부회(牽強附會) 하지 말고 타당한 논거로 반박을 하세요.
 - ② 그는 언제나 호시우보(虎視牛步) 하여 훌륭한 리더가 되었다.
 - ③ 함부로 도청도설(道聽塗說)에 현혹되어 주책없이 행동하지 마시오.
 - ④ 이번에 우리 팀이 크게 이긴 것을 전화위복(轉禍爲福)으로 여기자.
- 다음 중 밑줄 친 부분의 한자가 나머지 셋과 다른 것은?
 - ① 오래된 나사여서 만모가 심해 빼기 어렵다.
 - ② 평소 절차탁만에 힘써야 대기만성에 이룰 수 있다.
 - ③ 정신을 수양하고 심신을 연마하는 것이 진정한 배움이다.
 - ④ 너무 열중하여 힘을 주다 보니 근육이 만비 되었다.
- 밑줄 친 부분의 띄어쓰기가 잘못된 것은?
 - ① 한번 실패했다라도 다시 도전하면 된다.
 - ② 한번은 네거리에서 큰 사고를 낼 뻔했다.
 - ③ 고 녀석, 울음소리 한번 크구나.
 - ④ 심심한데 노래나 한번 불러 볼까?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6~7)

인류는 우주의 중심이 아니라 가장자리에 있으며, 인류의 기적 같은 진화는 유대, 기독교, 이슬람이 전제하고 있는 바와 같이 초월자의 선택에 의해 결정됐거나 힌두, 불교가 주장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자연의 우연한 산물이다. 우주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인류의 가치는 동물의 가치와 근원적으로 차별되지 않으며, 그의 존엄성은 다른 동물의 존엄성과 근본적으로 차등지을 수 없다. 자연은 한없이 아름답고 자비롭다. 미국 원주민이 대지를 '어머니'라고 부르는 것으로 알 수 있듯이 자연은 모든 생명의 원천이자 젖줄이다. 그것은 대자연 즉 산천초목이 보면 볼수록 느끼면 느낄수록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신선하고 풍요하기 때문이다. 자연은 무한히 조용하면서도 생기에 넘치고, 무한히 소박하면서도 환상적으로 아름답고 장엄하고 거룩한 모든 것들의 모체이자 그것들 자체이다. 자연은 영혼을 가진 인류를 비롯한 유인원, 그 밖의 수많은 종류의 식물과 동물들 및 신비롭고 거룩한 모든 생명체의 고향이자 거처이며, 일터이자 휴식처이고, 행복의 등지이며, 영혼을 가진 인간이 태어났던 땅이기 때문이다. 자연은 모든 존재의 터전인 동시에 그 원리이며 그러한 것들의 궁극적 의미이기도 하다. 자연은 생명 그 자체의 활기, 존재 자체의 아름다움의 표상이다. 또한 그것은 인간이 배워야 할 진리이며 모든 행동의 도덕적 및 실용적 규범이며 지침이며 길이다. 자연은 정복과 활용이 아니라 감사와 보존의 대상이다.

- 다음 중 위 글을 통해 파악할 수 있는 글쓴이의 성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낭만주의자(浪漫主義者)
 - ② 자연주의자(自然主義者)
 - ③ 신비주의자(神秘主義者)
 - ④ 실용주의자(實用主義者)
- 위 글의 구성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두괄식
 - ② 양괄식
 - ③ 미괄식
 - ④ 중괄식

8. 다음 중 아래의 글을 읽고 추론한 라캉의 생각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라캉에 의하면, 사회화 과정에 들어서기 전의 거울 단계에서, 자기와 자기 영상, 혹은 자기와 어머니 같은 양자 관계에 새로운 타인, 다시 말해 아버지, 곧 법으로서의 큰 타자가 개입하는 삼자 관계, 즉 상징적 관계가 형성된다. 이 형성은 제3자가 외부에서 인위적으로 비집고 들어섬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인간이 상징적 질서를 생각하게 되는 것은, 이미 그 질서가 구조적으로 인간에게 기능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이다. 인간이 후천적, 인위적으로 그 구조를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다. 인간은 단지 구조되어 있는 그 질서에 참여할 뿐이다.

말하자면 구조란 의식되지 않는 가운데 인간 문화의 기저에서 인간의 행위를 규정함을 뜻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라캉에게 있어서, 주체의 존재 양태는 무의식적인 것을 바탕으로 해서 가능하다. 주체 자체가 무의식적인 것으로서 형성된다. 그러므로 주체는 무의식적 주체이다.

라캉에게 나의 사유와 나의 존재는 사실상 분리되어 있다. 그는 나의 사유가 나의 존재를 확인시켜 주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라캉의 경우, '나는 생각한다'라는 의식이 없는 곳에서 '나는 존재'하고, 또 '내가 존재하는 곳'에서 '나는 생각하지 않는다'. 라캉은 무의식은 타자의 진술이라고 말한다. 바꾸어 말한다면 언어 활동에서 우리가 보내는 메시지는 타자로부터 발원되어 우리에게 온 것이다. '무의식은 주체에 끼치는 기표의 영향'이라고 라캉은 말한다.

이런 연유에서 '인간의 욕망은 타자의 욕망'이라는 논리가 라캉에게 성립된다. 의식의 차원에서 '내가 스스로 주체적'이라고 말하는 것 같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허상이다. 실상은, 나의 진술은 타자의 진술에 의해서 구성된다는 것이다. 나의 욕망도 타자의 욕망에 의해서 구성된다. 내가 스스로 원한 욕망이란 성립하지 않는다.

- ① 주체의 무의식은 구조화된 상징적 질서에 의해 형성된다.
- ② 주체의 의식적 사유와 행위에 의해 새로운 문화 질서가 창조된다.
- ③ 대중매체의 광고는 주체의 욕망이 형성되는 데 큰 영향을 미친다.
- ④ 데카르트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라는 명제는 옳지 않다.

9. 다음 중 아래 시의 주제로 가장 옳은 것은?

바람결보다 더 부드러운 은빛 날리는
가을 하늘 현란한 광채가 흘러
양양한 대기에 바다의 무늬가 인다.

한 마음에 담을 수 없는 천지의 감동 속에
찬연히 피어난 백일(白日)의 환상을 따라
달음치는 하루의 분방한 정념에 헌신된 모습

생의 근원을 향한 아폴로의 호탕한 눈동자같이
황색 꽃잎 금빛 가루로 겹겹이 단장한
아! 의욕의 씨 원광(圓光)에 문헌 듯 향기에 익어 가니

한줄기로 지향한 높다란 꼭대기의 환희에서
순간마다 이룩하는 태양의 축복을 받는 자
느림한 일사귀들 경이(驚異)를 담아 들고 찬양한다.

-김광섭, <해바라기>

- ① 자연과 인간의 교감
- ② 가을의 정경과 정취
- ③ 생명에 대한 강렬한 의욕
- ④ 환희가 넘치는 삶

10. 다음 중 아래 글의 제목으로 가장 옳은 것은?

방정식이라는 단어는 '정치권의 통합 방정식', '경영에서의 성공 방정식', '영화의 흥행 방정식'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애용된다. 수학의 방정식은 문자를 포함하는 등식에서 문자의 값에 따라 등식이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 경우를 말한다. 통합 방정식의 경우, 통합을 하는 데 여러 변수가 있고 변수에 따라 통합이 성공하거나 실패할 수 있으므로 방정식이라는 표현은 대체로 적절하다.

그런데 방정식은 '변수가 많은 고차 방정식', '국내·국제·남북 관계의 3차 방정식'이란 표현에서 보듯이 차수와 함께 거론되기도 한다. 엄밀하게 따지면 변수의 개수와 방정식의 차수는 무관하다. 변수가 1개라도 고차 방정식이 될 수 있고 변수가 많아도 1차 방정식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상황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의 개수에 따라 m원 방정식으로, 상황의 복잡도에 따라 n차 방정식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 또 4차 방정식까지는 근의 공식, 즉 일반해가 존재하므로 해를 구할 수 없을 정도의 난맥상이라면 5차 방정식 이상이라는 표현이 안전하다.

- ① 수학 용어의 올바른 활용
- ② 실생활에서의 수학 공식의 적용
- ③ 방정식의 정의와 구성 요소
- ④ 수학 용어의 추상성과 엄밀성

11. 다음 중 ㉠ ~ ㉣에 알맞은 말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먼 곳의 물체를 볼 때 물체에서 반사되어 나온 빛이 눈 속으로 들어가면서 각막과 수정체에 의해 굴절되어 망막의 앞쪽에 초점을 맺게 되면 망막에는 초점이 맞지 않는 상이 맺힘으로써 먼 곳의 물체가 흐리게 보인다. 이것을 근시라고 한다.

근시인 눈에서 보고자 하는 물체가 눈에 가까워지면 망막의 (㉠)에 맺혔던 초점이 (㉣)으로 이동하여 망막에 초점이 맺혀 흐리게 보이던 물체가 선명하게 보인다. 그리고 이 지점보다 더 가까운 곳의 물체는 조절 능력에 의하여 계속 잘 보인다.

이와 같이 근시는 먼 곳의 물체는 잘 안 보이고 가까운 곳의 물체는 잘 보이는 것을 말한다. 근시의 정도가 심하면 심할수록 눈 속에 맺히는 초점이 망막으로부터 (㉢)으로 멀어져 가까운 곳의 잘 보이는 거리가 짧아지고 근시의 정도가 약하면 꽤 먼 곳까지 잘 볼 수 있다.

- ㉠ ㉡ ㉢
- ① 앞쪽 - 뒤쪽 - 앞쪽
 ② 뒤쪽 - 앞쪽 - 앞쪽
 ③ 앞쪽 - 뒤쪽 - 뒤쪽
 ④ 뒤쪽 - 앞쪽 - 뒤쪽

12. 다음 중 ㉠을 가리키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허, 참, 세상 일두…….”

마을 갔던 아버지가 언제 돌아왔는지,
 “윤초시대두 말이 아니어. ㉠그 많은 전답을 다 팔아 버리구, 대대루 살아오든 집마저 남의 손에 넘기드니, 또 약상꺼지 당하는 걸 보면…….”

남쪽불 밑에서 바느질감을 안고 있던 어머니가,
 “증손이라곤 기집애 그 애 하나뿐이었지요?”

“그렇지. 사내에 둘 있든 건 어려서 잃구…….”

“어찌든 그렇게 자식복이 없을까.”

-황순원, <소나기> 중에서

- ① 雪上加霜
 ② 前虎後狼
 ③ 禍不單行
 ④ 孤掌難鳴

13. 밑줄 친 말이 한자어와 고유어의 결합이 아닌 것은?

- ① 이번 달은 예상외로 가윗돈이 많이 나갔다.
 ② 앞뒤 사정도 모르고 고자질을 하면 안 된다.
 ③ 불이 나자 순식간에 장내가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④ 두통이 심할 때 관자놀이를 문지르면 도움이 된다.

14. 다음 중 아래의 작품과 내용 및 주제가 가장 비슷한 것은?

동풍(東風)이 건듯 부러 적설(積雪)을 헤터 내니
 창 빛과 심근 매화 두세 가지 띄어세라
 그득 냉담(冷淡)하디 함향(暗香)은 므시 일고
 황혼의 달이 조차 벼마터 빛최니
 늦기난 닷 반기난 닷 님이신가 아니신가
 더 매화 것거 내여 님 겨신 디 보내오져
 님이 너리 보랴 엇더타 너기실고

ㅈ 고디고 새 님 나니 녹음이 ㅈ 렷는디 ㅈ
 나위(羅幃) 적막하고 수막(繡幕)이 뷔여 잇다
 부용(芙蓉)을 거더 노코 공작(孔雀)을 둘러 두니
 그득 시리 한디 날은 엇디 기뵈던고
 원앙금(鴛鴦錦) 버혀 노코 오색선 필터 내여
 금자호 ㅈ천화이셔 님의 옷 지어내니
 수품(手品)은 ㅈ 니와 제도도 그즈식골
 산호수 지게 우호 ㅈ백옥함의 다마 두고
 님의게 보내오려 님 겨신 디 ㅈ라보니
 산인가 구름인가 머호도 머흘시고
 천리 만리 길호 ㅈ라셔 ㅈ자갈고
 니거든 여려 두고 날인가 반기실가

- 정철, <사미인곡> 중에서

- ① 고인도 날 못 보고 나도 고인 못 뵈
 고인을 못 뵈도 녀던 길 알포 ㅈ잇니
 녀던 길 알포 ㅈ잇거든 아니 녀고 엇덜고
- ② 삼동에 배웃 입고 암혈(巖穴)에 눈비 맞아
 구름 낀 별뉘도 췌 적이 없건마는
 서산에 해 지다 하니 눈물 겨워 하노라
- ③ 뿔뿔들 갈히 것거 보내노라 님의
 손터자시는 창 빛과 심겨두고 보쇼셔
 밤비에 새 님 곳 나거든 날인가도 너기쇼셔
- ④ 반중(盤中) 조홍(早紅) 감이 고아도 보이니
 유자 안이라도 품엄죽도 흥다마니 ㅈ
 품어 가 반기 리 업슬새 글노 설워호니이다

15. 다음 중 표준어가 아닌 것은?
 ① 발가숭이 ② 깡충깡충
 ③ 뺨정다리 ④ 오뚝이

16. 다음 중 아래 글의 내용을 포괄하여 설명하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주체 경어법은 용언에 선어말 어미 '-시-'를 넣음으로써 이루어진다. 만약 여러 개의 용언이 함께 나타나는 경우라면 일률적인 규칙을 세우기는 어렵지만 대체로 문장의 마지막 용언에 선어말어미 '-시-'를 쓴다. 또한 여러 개의 용언 가운데 어휘적으로 높임의 용언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용언을 사용해야 한다.

- ① 할머니, 어디가 어떻게 편찮으세요?
 ② 어머님께서 돌아보시고 주인에게 부탁하셨다.
 ③ 선생님께서 책을 펴며 웃으셨다.
 ④ 할아버지께서 주무시고 가셨다.

17. 아래의 글에 나타나지 않는 설명 방식은?

텔레비전에서는 여러 종류의 자막이 쓰인다. 뉴스의 경우, 앵커가 기사를 소개할 때에는 앵커의 왼쪽 위에 기사 전체의 내용을 요약하거나 핵심을 추려 제목 자막을 쓴다. 보도 중간에는 화면의 하단에 기사의 제목이나 소제목을 자막으로 보여준다. 그리고 보도 내용을 이해하는 데 꼭 필요한 핵심적인 내용이나 세부 자료도 자막으로 보여준다.

관객이나 시청자가 읽을 수 있도록 화면에 보여 주는 글자라는 점에서 영화에서 쓰이는 자막도 텔레비전 자막과 비슷하게 활용된다. 그런데 영화의 자막은 타이틀과 엔딩 크레딧 그리고 번역 대사가 전부이다. 이는 모두 영화 제작과 관련된 정보를 알려주는 제한된 용도로만 사용된다. 번역 대사는 더빙하지 않은 외국영화의 대사를 보여주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된다.

텔레비전에서는 영화에서 쓰는 자막을 모두 사용할 뿐 아니라 각종 제목과 요약 내용을 나타내기도 하고 시청자의 흥미를 돋우기 위해 말과 감탄사를 표현하기도 한다. 음성으로 전달할 수 없는 다양한 정보를 제작자의 의도에 맞게 자막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것이다.

- ① 정의
 ② 유추
 ③ 예시
 ④ 대조

18. 다음 중 (가) ~ (다)를 문맥에 맞는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최근 수십 년간 세계 각국의 정부들은 공격적인 환경보호 조치들을 취해왔다. 대기오염과 수질오염, 살충제와 독성 화학물질의 확산, 동식물의 멸종 위기 등을 우려한 각국의 정부들은 인간의 건강을 증진하고 인간 활동이 야생 및 원시 지역에서 만들어 낸 해로운 결과를 줄이기 위해 상당한 자원을 투자해왔다.

(가) 그러나 이러한 규제 노력 가운데는 막대한 비용을 헛되이 낭비한 것들도 상당수에 달하며, 그중 일부는 해결하고자 했던 문제를 오히려 악화시키기도 했다.

(나) 이 중 많은 조치들이 커다란 성과를 거두었다. 이를테면 대기오염을 줄이려는 노력으로 수십만 명의 조기 사망과 수백만 가지의 질병을 예방할 수 있었다.

(다) 예를 들어, 새로운 대기 오염원을 공격적으로 통제할 경우, 기존의 오래된 오염원의 수명이 길어져서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대기오염을 가중시킬 수 있다.

- ① (나) → (가) → (다)
 ② (나) → (다) → (가)
 ③ (다) → (가) → (나)
 ④ (다) → (나) → (가)

19. 다음 중 밑줄 친 부분과 같은 수사법이 쓰인 것은?

흰 수건이 검은 머리를 두르고
 흰 고무신이 거친 발에 걸리우다.

흰 저고리 치마가 슬픈 몸집을 가리고
 흰 띠가 가는 허리를 질끈 동이다.

- 윤동주, <슬픈 족속>

- ① 내 누님같이 생긴 꽃이여
 ② 나의 마음은 고요한 물결
 ③ 파도가 아가리를 쳐들고 달려드는 곳
 ④ 의(義) 있는 사람은 옳은 일을 위하여는 칼날을 밟습니다

20. 밑줄 친 말의 표기가 잘못된 것은?

- ① 배가 고파서 공기밥을 두 그릇이나 먹었다.
 ② 선출된 임원들이 차례로 인사말을 하였다.
 ③ 사고 뒤처리를 하느라 골머리를 앓았다.
 ④ 이메일보다는 손수 쓴 편지글이 더 낫다.

21. 다음 중 아래 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어떤 사람은 이곳이 옛 전쟁터였기 때문에 물 소리가 그렇다고 말하나 그래서가 아니라 물 소리는 듣기 여하에 달린 것이다.

나의 집이 있는 산속 바로 문 앞에 큰 내가 있다. 해마다 여름철 폭우가 한바탕 지나가고 나면 냇물이 갑자기 불어나 늘 수레와 말, 대포와 북의 소리를 듣게 되어 마침내 귀에 못이 박힐 정도가 되어 버렸다.

나는 문을 닫고 드러누워 그 냇물 소리를 구별해서 들어 본 적이 있었다. 깊숙한 숲속에서 울려 나오는 솔바람 같은 소리, 이 소리는 청아하게 들린다. 산이 찢어지고 언덕이 무너지는 듯한 소리, 이 소리는 격분해 있는 것처럼 들린다. 못 개구리들이 다투어 우는 듯한 소리, 이 소리는 교만한 것처럼 들린다. 수많은 축(筑)이 번갈아 울리는 듯한 소리, 이 소리는 노기에 차 있는 것처럼 들린다. 별안간 떨어지는 천둥 같은 소리, 이 소리는 놀란 듯이 들린다. 약하기도 세기도 한 불에 찻물이 끓는 듯한 소리, 이 소리는 분위기 있게 들린다. 거문고가 궁조(宮調)·우조(羽調)로 울려 나오는 듯한 소리, 이 소리는 슬픔에 젖어 있는 듯이 들린다. 종이 바른 창문에 바람이 우는 듯한 소리, 이 소리는 회의(懷疑)스러운 듯 들린다. 그러나 이 모두가 똑바로 듣지 못한 것이다. 단지 마음속에 품은 뜻이 귀로 소리를 받아들여 만들어 낸 것일 따름이다.

- 박지원, <일야구도하기> 중에서

- ① 직유와 은유를 활용하여 대상을 묘사하였다.
- ② 세심한 관찰을 통해 사물의 본질을 이해할 수 있음을 역설하였다.
- ③ 일상에서의 경험을 자기 생각의 근거로 제시하였다.
- ④ 다른 이의 생각을 반박하기 위하여 서술하였다.

22. 밑줄 친 ‘보다’의 활용형이 지닌 의미가 나머지 셋과 다른 것은?

- ① 어쩐지 그의 행동을 실수로 볼 수가 없었다.
- ② 손해를 보면서 물건을 팔 사람은 없다.
- ③ 그는 상대를 만만하게 보는 나쁜 버릇이 있다.
- ④ 날씨가 좋을 것으로 보고 우산을 놓고 나왔다.

23. 다음 중 ‘을’이 ‘동의의 격률’에 따라 대화를 한 것은?

- ① 갑: 저를 좀 도와주실 수 있어요?
을: 무슨 일이지요? 지금 급히 해야 할 일이 있어요.
- ② 갑: 글씨를 좀 크게 써 주세요.
을: 귀가 어두워서 잘 들리지 않는데 좀 크게 말씀해 주세요.
- ③ 갑: 여러 모로 부족한 점이 많은데,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을: 저는 매우 부족한 사람이라서 제대로 도와 드릴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 ④ 갑: 여러 침대 중에 이것이 커서 좋은데 살까요?
을: 그 침대가 크고 매우 우아해서 좋군요. 그런데 좀 커서 우리 방에 들어가지 않을 것 같아요.

24. 아래의 글에서 밑줄 친 단어들 중 고유어에 해당하는 것은?

절간의 여름 수도(修道)인 하안거(夏安居)가 끝나면 스님들은 바랑을 메고 바리를 들고서 동냥 수도에 나선다. 이 동냥이 경제적인 구걸로 타락된 적도 없지 않지만 원래는 중생으로 하여금 자비를 베풀 기회를 줌으로써 업고(業苦)를 멸각시키려는 수도 행사였다.

- ① 동냥
- ② 구걸
- ③ 중생
- ④ 자비

25. 다음 중 밑줄 친 단어를 <로마자 표기법>에 맞게 표기한 것은?

내 이름은 복연필이다.
어제 우리는 청와대를 다녀왔다.
작년에 나는 한라산을 등산하였다.
다음 주에 나는 북한산을 등산하려고 한다.

- ① 복연필 - Bok Nyeonphil
- ② 청와대 - Chungwadae
- ③ 한라산 - Hanrasan
- ④ 북한산 - Bukhansan